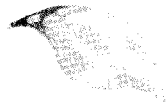


● 기고

동아출판사 창업주인 원로 출판인 김상문 전 동서문화사 회장이 지난 3월 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김 전 회장은 1960~70년대 초 중생들이 많이 이용했던 『동아전과』, 『동아완전정복』 등으로 유명하다. 82년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도 출간했다. 그는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관 속에 동아전과와 세계대백과 사전을 넣어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상문 회장과 남다른 인연을 가진 동서문화사 고정일 사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김상문 회장님은 출판황제였습니다”



문장경국지대업

봉향이 먹을 갈자 고래원(古若園) 먹향기가 방 안 가득 차오른다. 내음이 좋다. 정암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순백으로 펼쳐진 화선지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평안당(平安堂) 붓을 들어 일필휘지한다. 호흡의 가다듬음, 붓잡음의 강약과 운필, 역동의 굴절, 먹물의 가늠, 모두 순조로웠다.

文章經國之大業

필세(筆勢)가 획에 꿈틀거리듯 자체(字體)들이 응혼하다. 정암의 얼굴에 썩 흠족함이 떠올랐다. 봉향을 바라본다. 그녀 또한 다소곳이 미소를 보낸다.

이천이년정월 원단 차례상을 물리고 정암은 봉향과 신춘회호로 초하루 아침의 파적(破寂)을 즐긴다. 문장경국지대업. 문장은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함이라는 조비(曹丕)의 《전론논문(典論論文)》에 나오는 글귀이다. 그 원문은 대저 이러하다.

문장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결코 썩지 않는 성대한 사업이다. 목숨이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영예와 즐거움도 자신에 머물 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오게 마련, 문장이 다함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 때문에 옛날 글 짓는 사람들은 모두 문장에 몸을 맡기고 글 속에서 뜻을 펼쳤다. 그래서 굳이 훌륭한 사관의 글을 빌리지 않고 날 듯이 뛰는 말의 기세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명성은 절로 후세에 전해졌던 것이다. 때문에 서백 문왕은 옥에 간혔을 때 《주역》을 구연했고, 주공 단은 현달하자 《예기》를 지었다. 숨기고 요약한다고 해서 더 힘쓰지 않을 것도 아니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라 해서 생각을 더 하는 것도 아니다. 무릇 이러했기에 옛사람들은 옥구슬과 같은 보배는 천하게 여기고 한 치 시간을 중하게 여겼다. 시간이 자신을 지나쳐 흘러가 버려도 사람들이 애써 더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두렵구나. 가난하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을 두려워하며 부유하고 귀해지면 일락에 빠져든다. 그리하여 목전에 닥친 업무만 완수하지 천년을 길이 갈 공훈은 놓치게 된다. 해와 달은 하늘 위에서 노닐며 지나가고 신체는 땅 아래서 쇠약해지기만 하다가 갑자기 만물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뜻있는 선비가 크게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공용 등은 이미 세상을 버렸고 오직 서간의 빛나는 논문만이 일가의 말을 이루었다.

청운의 꿈

정암 김상문(靜巖 金相文)은 1915년 9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부친 김경의 모친 손선이의 3남 1녀 중 막내였다. 만형은 열 살 위 중형은 세 살 위였다. 그의 부친은 안경집을 경영했는데, 유순하고 사교적인 성격에 미남이어서 가게에는 늘 여자 손님이 북적거렸다. 조부는 성격이 외곬에다 조금 편이라 느긋한 성격의 부친과는 가끔 부딪치기도 하였다. 게다가 그의 부친은 기독교 신자였고 조부는 성당에 다녔다. 막내 손자인 어린 상문의 손을 잡고 산책하기를 좋아하던 조부는 새벽 5시 종이 울리면 겨울에도 독의 얼음물을 깨어 세수를 하고 성당으로 향했다. 그는 고혈압으로 고생하면서도 전혀 흐트러진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언제나 청빈한 생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부친 김경의는 개화된 인텔리로서 어린 상문에게 일찍이 한글이며 한문을 직접 가르쳐 주었다. 그는 대구 시내에 있는 '일어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다. 상문은 아버지에게서 한글과 한문을 배우다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대구성당 옆 가톨릭 계통의 해성보통학교였다. 보통학교 시절 그는 뒷날 평생 출판동지가 되는 학원사를 세운 김익달을 만난다. 김상문은 열네 살 때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열다섯 살 때 대구

사범학교에 응시했다. 그 무렵 사범학교는 경성, 평양, 대구의 세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는 당당히 합격했다. 학교에서 달마다 학비 보조금 7원을 받았다.

1935년 3월, 김상문은 대구에서 100리쯤 떨어진 경상북도 달성군 유가초등학교에 부임한다. 4학년까지 있는 조그만 학교였다. 총학생수 160여 명으로 한 교실에 두 학년 80명을 넣어 복식수업을 하였다. 청년교사 김상문은 이내 농촌의 환경에 젖어들었다.

1935년 9월 초, 그는 경북 청송군 진보초등학교로 전근하게 되었다. 일본인 교장과의 다툼으로 인한 인사조치였다. 이 학교에 부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교장은 필체가 뛰어난 김상문에게 문검(文檢)을 치를 것을 권했다. 문검에 합격하면 서예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어 중학교에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장의 배려에 힘입어 낮에는 교사로서 충실하였고 밤이면 한문과 허라가나 서예 공부로 날을 지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더 뜻있는 큰일을 찾고 싶었다. 마침내 김상문은 일본 도쿄에 있는 안태신의 권유를 받아 도쿄행을 결심하게 된다. 그의 나이 스물다섯 살 때였다.

'금문사'에서 미래를 다지고

1940년 3월, 김상문은 교사로 근무하며 모은 돈 1천 원을 만형에게 맡겨 다달이 50원씩 송금받기로 하고 도쿄로 건너갔다. 금광에 관심이 있던 터라 우선 1년 속성과정의 흥아공학원 채광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던 중 만형이 꼬박꼬박 보내던 50원이 어느 날부터 돌연 끊어지는 바람에 김상문은 몹시 궁하고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

'금문사'라는 프린트사에서 필경생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가 눈에 띄었다. 김상문은 곧장 달려가 서류에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썼다. 그것이 시험이었다. 워낙 필체가 뛰어났던 그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된다. 김상문은 흥아공학원을 졸업하고 규슈에 있는 요부노의 아사노시멘트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석회암을 파내는 광산인 그곳에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많았다. 김상문은 한국인 노무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지만 겨우 5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그만둔다.

1941년 9월, 김상문은 일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그는 대구 근교 소림광산회사에 취직하였다. 그곳은 중석을 캐는 광산이어서 일본에서 공부한 전공기술을 살리려고 했으나 의외로 총무과에 배치되었다. 전공보다 먼저 그의 글씨 솜씨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그는 광산에서 영똥하게 서류작성하는 일을 하다가 소장과 크게 다투고 사표를 내버린다.

그러고는 박봉향(朴鳳香)과 결혼하게 된다. 그의 아내 박봉향은 보통학교 동기동창인 김영호의 중매로 만났다. 박봉향은 잡화상을 크게 하는 집안 10남매 중 둘째 딸로 얼굴

이 희고 키가 훗칠했으며, 경북여고와 경성사범을 졸업한 인텔리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불꽃같은 사랑이 이루어져 만난 지 20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김상문은 필경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프린트사를 차릴 의욕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러나 사무실을 얻자면 무엇보다 먼저 돈이 필요했다. 출판(등사원지를 그 위에 놓고 철판으로 굽기 위한 것) 수리공으로 전국 학교와 관청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며 자금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결심부터 하였다. 자신감에 차 있는 그였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새색시한테는 좀처럼 털어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김상문은 용기를 내어 박봉향에게 고백을 하였다. 아내는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도 미싱으로 옷을 만들어 팔겠다고 그의 결심을 북돋아 주었다.

출판 수리공으로 인생을 배우다

김상문의 아버지 김경의는 59세에 일생을 마쳤다. 유난히 부친의 사랑을 받은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본 여인과의 한때의 로맨스를 사진으로 남긴 멧쟁이 아버지의 추억만이 그의 집안에서 대물림하는 얘기 거리가 되었다.

출판 수리공이라니! 김상문에게 실망한 친가와 처가에서는 그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내 박봉향이 유일하게 그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 부인의 지참금 3백 50원 중에서 50원을 인출하여 약품과 도구 등 준비물을 챙기고 먼저 대구 시내 수창인쇄소에서 명함을 찍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형님 집으로 하고 ‘출판 수리 전문, 만년필도 수리함’이라고 썼다. 만년필 촉을 갈아주고 만년필에 이름을 조각해 주는 일도 겸하였다.

첫 걸음을 내딛는 김상문은 몸을 휘감는 한겨울의 찬바람보다도 더 으스스한 마음의 한기를 느끼며 보스턴 가방을 들고 경주행 기차에 올랐다. 그는 기차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첫째, 출판 한 장 수리비를 얼마로 정할까? 둘째, 많은 주문을 받으려면 어떤 상술을 써야 할까? 셋째, 수리는 반드시 여관에서 하여 수리비법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그는 경주역에 도착하자마자 읍사무소로 향했다. “저는 출판 수리공인 김상문입니다. 낡은 출판을 신품 못지않게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리할 출판이 있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도 머리는 깊이 조아렸다. “아, 마침 잘 되었소. 한 개당 수리비가 얼마요?” “네. 한 개에 2원 50전에 해 드리겠습니다.” 용도과장은 곧 급사에게 헌 출판을 모으도록 지시하여 한꺼번에 열 개를 주었다. 그는 점심도 거름채 열 개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용도과장에게 가져다 주었다. 용도과장은 그 중 3개를 골라 직접 원지를 깔고 철판으로 써보더니 만족해하였다. 그는 영수증에 도장 찍고 25원을 받은

뒤에 가지고 온 백지 수첩에다 열 개를 수리했다는 확인을 받았다. 자신감이 생긴 참에 아예 경주 안동여관을 숙소로 정하고 읍내 각 학교를 돌아다녔다. 월성여자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모두 22개의 주문을 받았다. 12월 초순이라 날씨는 춥고 해는 짧았지만, 어떤 악조건도 그에게 장애가 될 수는 없었다. 오로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이 온 몸의 피돌기를 용솟음치게 하였다.

끼니도 잊은 채 22개의 수리를 다 끝내고 보니 가지고 나온 약품도 바닥이 났다. 할 수 없이 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뿌듯했다. 집을 나설 때 대문 밖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수금을 해 보니 모두 80원이었다. 웬만한 고급 월급쟁이의 두 달치 봉급이었다. 식구들도 첫 성공을 기뻐하였다. 이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김상문은 새로이 계획을 세우고 가방을 한 개 더 추가하여 약품과 도구들을 더욱 많이 챙겼다. 이때 수입은 360원이었다. 경북 일대를 거의 다 돌고 나자 수금한 돈이 모두 700원이나 되었다.

1943년이 되자, 출판 수리도 점차 영역이 좁아졌다. 일본인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선수를 쳤다. 김상문도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일본인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며 전국을 돌았다. 달콤한 신혼의 꿈도 미루어 둔 채, 프린트사를 차리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정이월 엄동설한에도 동분서주하며 꿈을 품은 수리공으로서의 인생의 칸을 하나하나 채워 나갔다. 그러나 일본인 수리공들의 극성으로 갈수록 일 얻기가 어려워졌다. 김상문은 출판 수리보다 이제부터는 만년필촉 가는 일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 모두가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이지는 하였으나 그래도 남들에게 당장 초라한 모습으로 비취지는 것은 참아내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기도 했다. 그는먼저 학교마다 선전 문구를 붙였다.

‘만년필촉 신품처럼 재생, 한 개 수리비 50전’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금세 만년필 80여 개가 쌓였고, 그 이튿날은 집안 식구들 것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를 동안 자그마치 65원을 벌게 되었다. 그는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예 선전문구를 게시판에 붙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때때로 아는 사람과 맞닥뜨리고 나면 창피한 마음이 들어 문득 그만둘까도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 ‘독립된 사업이니 월급쟁이 광산기사보다 낮고 수입도 훨씬 좋지 않은가’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였다. 지방을 거의 돌고 서울에 가서 또 한 몫을 해보리라 할 때 “이제 그만하고 프린트사를 빨리 차리는 것이 어떠냐”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만년필 수리공 노릇에 종지부를 찍었다.

동아프린트사 설립

그동안 모은 돈이 3천6백 원, 이것이 동아프린트사의 창업자금이었다. 김상문은 1942년 4월 15일 마침내 ‘동아프린트사’를 열었다. 영업방침은 첫째, 미려한 서체를 쓸 것 둘째, 오류가 없을 것 셋째, 납기를 엄수할 것 등이었다. 그는 직접 안내문을 등사하여 조합? 은행? 학교와 각급 관공서에 빠짐없이 보냈다. 김상문은 또 로비 실력을 발휘하여 경북도청 용도계장을 수없이 찾아가 일거리를 따냈다. 동아프린트사는 어느새 도청의 전속 프린트사처럼 되었다. 일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도 3명이나 두었다. 그 무렵 대구에는 이미 서너 군데 프린트사가 있었다. 그러나 품질면에서나 영업면에서나 동아프린트사를 따를 곳이 없었다. 붓물타지듯 쏟아지는 주문으로 밤낮없이 일했다. 동아프린트사를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은행 예금액은 1만 2천 원이나 되었다. 김상문은 달성군청 앞 목조건물 2층집을 사들였다. 부족한 자금은 장인이 선뜻 빌려 주었지만 이내 갚을 수 있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금세 대저택의 주인이 된 것이다.

1945년 5월, 그는 병사부로부터 큰 인쇄물을 주문받았다. 《항전필후(抗戰必携)》란 그림책인데, 미군이 조선반도에 상륙하면 게릴라전을 펴서 기습한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책이었다. 4×6배판 약 80쪽이었으며 부수는 2만 부였다. 용지는 선화지 50연과 갱지 100연을 받았다. 부인 박봉향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은 김상문이 직접 썼다.

9월 15일의 납품기일을 한 달 앞두고 7천 부 정도 제작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일본 패전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재빨리 7천 부를 병사계로 가지고 가서 대금을 청구했다. 다행히 다음날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상문은 어수선한 정황에서도 은행예금 1만 5천 원을 찾아 가지고 대구역 앞 종이배급소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종이를 사들였다. 공정 가격이었으므로 평소보다 아주 싼 값이었다. 그는 역 앞에서 손수레를 빌려 직접 끌어 종이를 날랐다. 쌀 한 말과 갱지 한 연과 맞바꿀 정도로 종이가 귀하고 비싸던 때였다. 그는 이때 사두었던 갱지로 뒤에 《신생국어독본》을 발간하게 된다.

동아출판사 탄생

1945년 9월 중순이었다. 해방 직후여서 정국은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격랑의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김상문은 종이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둔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어느 날 경상북도 도청 학무과에서 연락이 왔다. 이효상 학무과장(뒷날 국회의장)이 동아프린트사에 찾아오겠다는 전화였다. 이효상은 만형의 친구이기도 했다. 이효상과 김사엽 시학관(국문학자)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네. 형님은 잘 계시오? 요즘 통 연락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형님.

어떤 일이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이제 우리 세상이 되었으니 경북에서 제일 먼저 우리말 국어독본을 만들 것이니 협조해 주게.” 김상문은 순간적으로 종이 수백 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음을 알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80쪽짜리 한 권으로 초등학교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배울 책이네. 이제 우리나라 국어책을 낼 때가 되었잖은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를 뒤 다시 모여 아래의 사항을 결정했다. 1. 4·6배판 80쪽. 본문용지는 갱지, 표지는 모조지 100g 정도. 2. 가격은 3원 50전 3. 3만 부는 학무과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자유 판매한다. 일제에 의해 우리말이 완전히 말살되어 버려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6학년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 새로이 국어를 배워야 할 때였다. 김상문은 우리말 국어독본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가슴이 벅찼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우리 국어 교과서 출판에 적극 힘을 모아 자고 당부했다. ‘동아프린트사’는 《신생국어교본》을 첫 출판하면서 ‘동아출판사’로 그 면모를 격상한다. 구멍가게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책 역시 박봉향이 삽화를 그리고, 글씨는 김상문이 썼다. 우선 학무과에 납품할 3만 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없이 작업했다. 북한의 송진 중단으로 침침한 남포불 아래서 부부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다. 인쇄는 등사판 4대를 사용해 낮에 하였다. 1주일에 5천 부씩을 찍어 내어 6주 만에 3만 부를 학무과에 납품했다. 그래도 이것은 학생수에 비해 엄청나게 부족한 수량이었다. 부족분은 학교 자체에서 등사인쇄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때 다른 프린트사에서 유사한 책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기술면에서나 용지면에서 동이를 능가할 수는 없었다. 책은 권당 3원 50전이었는데, 책값이 날로 뛰어 5원 7전까지 되었다. 인플레이와 용지대 폭등이 원인이었다. 책은 뒤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잘 팔렸다.

뒤이어 문교부에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발행하자, 김상문은 6학년용 《국어자습서》를 대구사범 동창인 김사엽 집필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출판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 자습서는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팔려 나갔다. 이어 김상문은 경상북도 도내 중학교 입시문제를 모아 과목별로 해설과 응용 문제를 곁들여 《중학입시문제집》을 출판한다. 이 책은 오늘날 《00년간 고입총정리》의 모체가 된다. 이 《중학입시문제집》또한 대히트였다. 1949년까지 김상문은 《한글맞춤법 해설》《우리 국사》, 중학생용 《신생국어독본》등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런 출판물들은 대구에 활판 시설이 없어 부득이 등사인쇄에 의존해야만 했다. 활판인쇄에 비하면 질도 떨어지고 많은 부수를 찍을 수도 없어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5월호계속> ➤

고정일 등서문화사 사장